◉이 사람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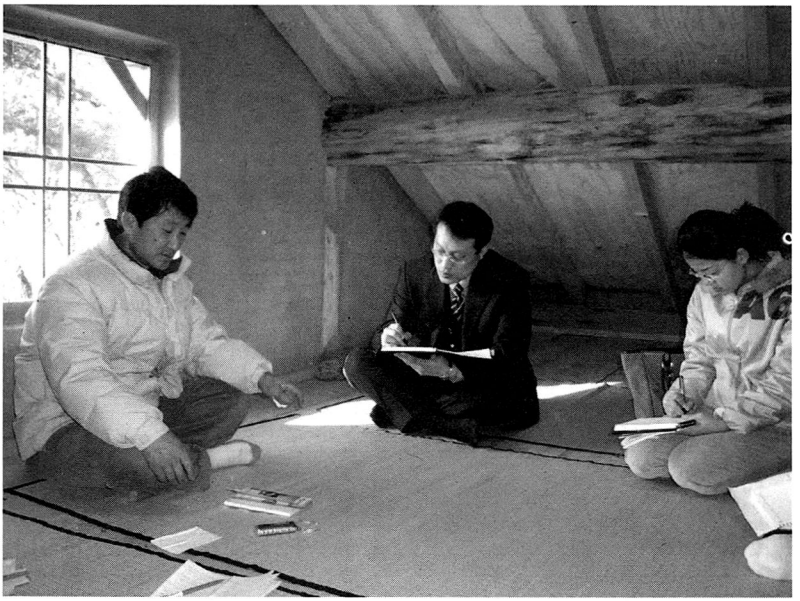
21세기를 준비하는 농민 주형로

김 남 철(목사, 충남 당진 새곡교회)

생각하는 농민,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을인 충남 홍성의 문당리 마을을 찾았다. 농민운동 하면서, 생태마을 꾸미기를 실천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농민 주형로 씨를 만났다. 전국으로 강의하러 다니고, 마을 환경농업 교육관에서 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때문에 겨울철이 더욱 바쁜 농민 운동가이다.

2월 10일, 약속한 날 방문을 하였다. 그 날도 대형버스 두 대가 와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연초에 개관한 황토 찜질방 체험실에 들어갔다. 황토와 나무냄새가 진동을 한다. 나의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스믈스믈 빠져나가는 듯 하다.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황토집을 짓고서 살고 싶다고 한다. 찜질방은 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이 찜질방에 와야겠다.

주형로 씨는 강의를 하느라 목이 쉬었다.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주형로 씨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외국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미리 답사를 왔다고 한다. 황토 찜질방 다락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집도 자신이 설계하였다고 한다. 다락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생태마을 만들기에 미쳤기 때문이다. 마을 환경에 대해서, 건물



대담 중인 주형로 씨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1977년에 유기농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은 여기에 미쳤다고 한다. 지금도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단다.

앞으로 한의원을 개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생태마을과 환경농업의 가장 주된 목표는 건강한 삶이라면서 한약재 재배를 유기농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지금의 한약재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많고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기농 한약재 재배를 통해 약효가 있는 한약을 공급해주는 한의원을 운영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일에 동참할 한의원을 만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유기농을 통한 환경농업을 하려는 꿈은 많지만 경제성 때문에 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다. 그리고 시작을 했다가 판로의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였다. 주형로 씨는 이러한 난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몸으로 뛰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은 풀무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신앙의 영향이 컸다.

온 식구들이 모두 풀무학교 동문이다. 부인도 풀무학교 후배라고 한다. 자녀들도 모두 풀무 학교를 다녔다. 삶의 환경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생의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농민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목이 쉬었다.

나는 주형로 씨의 신앙관이 궁금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 풀무학교는 김교신 선생과 함석헌 선생의 무교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 운영되어왔다. 지금 그는 문당리에 있는 밀알교회(장로교 개혁측)에 출석하고 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그의 교회관은 일반적인 교회관과는 다르다. 기성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이지만 더 좋은 교회는 마을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여야 한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교인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목회자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 목사는 마을의 한 주민이 되어야 한다. 성직자로써 대접을 받으려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을의 주민이 되려면 목사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짓지 아니하고 농촌교회 목회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면,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성경이 농경문화권에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밀알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름을 서로 잘 안다. 그렇지만 목사의 이름은 모른다. '키 큰 목사', '안경 쓴 목사', '빼빼 마른 목사'라고 부른다. 목사의 외형적인 것만 알고 있다. 교회와 마을이 별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형로 씨는 목회자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지금의 밀알교회 목사님은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미자립이었는데 지금은 외부 보조를 받지 않고서도 자립을 한다. 오리농법으로 지은

쌀을 판매해서 그 수입금을 교회 재정에 보태고 있다. 농촌교회 자립은 농사를 지어서 해결해야 한다. 목사님이 마을 주민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부역도 다니고 마을 모임에도 다 참석한다. 마을 사람들의 생일집도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어울려 산다. 그래서 지금은 밀알교회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문당리 마을의 한 집이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그날 찜질방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노인도 전에는 엄청나게 교회를 비난했는데 지금은 아주 동조적이다. 농촌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도 농촌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농촌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선교적 과제라고 강조를 한다.

주형로 씨는 조류독감, 광우병 이야기를 하였다. 가축을 자연적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생긴 재앙이라고 했다. 한국이 베트남 다음으로 항생제를 남용하는 세계 2위 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교회가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데만 신경을 쓴다며 답답하다고 한다. 교회는 마을의 영적 지도를 담당해야 한다며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목회자들의 변화를 강조한다.

그는 또, 지금은 투쟁의 시대가 아니라 화합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때라고 강조한다. 한국 농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이곳 홍성 문당리 환경농업 마을이 제시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은 이제 농민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탁상공론으로 농촌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농민이 없다면서 문당리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농촌을 살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서』를 발간하였다고 해서 5,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 이 책자를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지만 반응이 없다고 한다. 정부가 문당리에 관심이 없다면 한국의 농촌은 미래가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이민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했다. 지금도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간다. 귀농인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도시의 떠돌이가 되고 있다. 그러

문당리 마을의 도정공장(오리농법으로 지은 쌀을 찧고 있다)

나 문당리에는 귀농인들이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 인구가 오히려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희망을 만들어 가는 마을이다.

오리농법으로 지은 쌀을 도정하여 계약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주느라 오늘도 정미소에서는 쌀을 찧는다. 마을의 소득이 증가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소득이 있어야 농민들이 힘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다.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환경농업 마을 만들기 전도사가 되어서 목이 쉬어가면서 뛰고있다.

오리농법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나왔다. 아름답게 지은 환경농업교육관과 농업관을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었다. 재래식 변소깐에서 오줌도 시원하게 누었다. 다음에 와서는 찜질방에 들어가 인스턴트 노폐물을 몽땅 빼버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mundang.invil.org) 農